

보도시점 2026.9.29.(화) 11:00
< 9.30.(수) 조간 >

배포 2026. 9. 29.(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 제2차 협상 개최

9.30.~10.1일 서울, 저배출 상품무역 원활화 및 항공 등 분야 그린협력 논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그린경제 분야에서 통상의 규칙과 무역 투자 확대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reen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제2차 공식협상을 9.30(수)~10.2(금) 우리나라 서울에서 개최한다.

산업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 협상에 우리나라,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칠레에서 20여명 참여국 협상단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및 칠레 3국은 지난해 10월 APEC 정상회의 계기 GEPA 추진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올해 7월 싱가포르에서 협상을 개시한 바 있다. 우리나라는 이달 11일 통상장관간 서한 교환을 통해 GEPA 참여를 공식화한 이후 이번 2차 협상부터 본격적으로 협상에 참여하게 되었다.

GEPA는 참여국 간 EU CBAM과 같은 무역 관련 기후조치에 대한 공동의 기준을 마련하고,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무역 촉진을 도모하는 협정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저배출·환경 상품의 식별 기준과 관련 제품의 무역 확대 방안, 항공 분야 지속가능항공유(SAF) 관련 활용 협력 등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번 제2차 협상 개최를 통해 한국의 GEPA 참여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고 평가하며, “기후변화 대응 및 녹색시장 확대 노력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新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신통상전략지원관 기후경제통상과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담당자	사무관	이혜진 (044-203-4895)